

# 청소년의 비합리적 신념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 대한 영성의 매개효과 검증

## The Mediating Effect of Spiritua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rrational Beliefs and Self-esteem

이은철

한국교육개발원

Eun-Chul Lee(lec3918@kedi.re.kr)

###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비합리적 신념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영성이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14세에서 19세 청소년 50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419명에게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대상의 평균 연령은 15.8세이다. 수집된 자료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최초 연구 모형은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모형수정지수를 참조하여 모형을 수정한 결과 1차 수정 모형은  $\chi^2=222.527$ ,  $df=83$ ,  $p<.000$ ,  $GFI=.975$ ,  $NFI=.961$  그리고  $RMSEA=.061$ 로 나타나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모형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의 직접 효과는 .02이며, 영성을 매개한 간접효과는 .30로 나타났다. 이에 자아존중감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의 영향을 영성이 매개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를 볼 때 청소년들의 비합리적 신념이 자아존중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영성 수준을 향상 시키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비합리적 신념의 부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중심어 : | 학교폭력 | 자아존중감 | 비합리적 신념 | 영성 |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mediating effect of teenagers' spiritua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rrational Beliefs and self-esteem. For research,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500 teenagers aged 14 to 19. And data were collected from 419 persons. The average age of subjects was 15.8. The collected data verify by structural equation model. As a result, it was shown that the first research model was not good. Henc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modifying the model after referring to model modification index, the first modified model showed  $\chi^2=222.527$ ,  $df=83$ ,  $p<.000$ ,  $CFI=.975$ ,  $TLI=.968$ ,  $NFI=.961$  and  $RMSEA=.061$ . Therefore, it was shown that the model was suitabl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effect of model at this point, it was shown that the direct effect which unreasonable beliefs had on self-esteem was .02, and indirect effect through the mediation of spirituality was .30. Hence, it was verified that spirituality mediated the effect which unreasonable beliefs had on self-esteem. When this is considered, it is thought that, if the level of spirituality is improved, the negative effect which teenagers' unreasonable beliefs had on self-esteem will decrease, though the unreasonable beliefs have a negative effect on self-esteem.

■ keyword : | School Violence | self-esteem | Irrational Beliefs | spirituality |

## I. 서론

최근 청소년들의 학교 폭력 및 범죄 행동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특별히 청소년에 의한 학교 폭력은 나날이 흉포화 되고 있고, 심지어 조직화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학교 폭력은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게 되어 국가의 발전과 안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학교 폭력과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Wee Class나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정책과 방안들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8]. 이를 통해 일부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못하고 있다[8].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소년의 폭력과 범죄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의 형성이 청소년의 문제 행동을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2].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 체계가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여 형성된 가치 체계에 의해서 자신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자신에 대해 가지는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라고 설명할 수 있다[17].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신념체계, 주변 환경, 내. 외부의 평가가 종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형성된다[21]. 이에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지게 되면 자신에 대한 부정확한 평가를 하게 되며, 자신에 대한 가치를 폄하함으로써 주변 환경과 적절한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고, 부적응적 행동이 나타나며 이를 통해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이끌어내기도 한다[24].

결론적으로 청소년들이 긍정적이고 건강한 자아존중감을 가질 때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청소년들이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서 조절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다. 여러 요인 가운데 비합리적 신념이 최근 학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31]. 비합리적 신념은 현실적인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자신에 대한 과도한 믿음을 가지는 부정적인 신념체계를 의미한다

[8].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신념체계와 주변 환경, 내. 외부의 평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는데 개인의 신념체계가 부정적일 때 자아존중감이 부정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비합리적 신념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다. 그러나 비합리적 신념은 개인이 오랜 시간 동안 형성한 신념체계이기에 단기간의 교육, 훈련 또는 상담을 통해서 조절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에 비합리적 신념과 자아존중감을 매개할 수 있으며, 단기간에 교육과 훈련, 상담을 통해서 조절이 가능한 요인을 찾는다면 청소년들이 긍정적이고 건강한 자아존중감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비합리적 신념과 자아존중감을 매개하며, 단기간에 조절이 가능한 요인으로 영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비합리적 신념과 자아존중감을 매개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선행연구 결과 영성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높은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며, 개인적인 신념에 대한 영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8][11]. 이와 함께 교육과 훈련, 상담을 통해서 비교적 용이하게 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 이를 근거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해 비합리적 신념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영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self-esteem)에 대한 여러 정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아존중감을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며, 자신의 유능성에 대한 확신이라는 정의도 있다. 다음으로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을 향해 스스로 칭찬하거나 비난하는 정도이며 이와 함께 자신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정도와 함께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성공적이며 가치 있는 것인지를 확신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과 중요성, 성공에 대한 가능성을 스스로 평가한 결과와 외부에서 오는 평가의 결과를 종합하여 스스로 자신의 가치에 대해 내리

는 판단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앞선 정의는 개인의 가치를 강조하는 측면이 강했다면 자아존중감을 자신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지 평가하는 정도로 정의 내리면서 평가적 요소를 강조하기도 한다[17][24][30][31].

앞서 살펴본 자아존중감의 정의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자아존중감은 한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내리는 평가에 따른 인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 체계가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여 형성된 가치 체계에 의해서 자신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자신에 대해 가지는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21].

자신의 가치를 평가할 때 외부의 평가와 스스로의 평가를 종합하여 결정하게 된다. 이처럼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신념체계, 주변 환경, 내·외부의 평가가 종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형성된다. 이에 자아존중감의 형성에는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이 작용하게 된다[10]. 환경적 요인은 사회의 문화, 부모의 교육수준과 양육태도,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과 친지들의 문화가 있다. 개인적 요인은 신체적 능력이나 외모, 성격 특성, 성별, 개인의 신념 체계 등이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16].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기 원한다.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가치 있고, 중요한 사람이라는 평가 결과에 의해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의 잘못된 신념체계 또는 청소년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적 집단에서 자신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면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이 형성된다[21].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이 형성된 청소년들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많은 경우 폭력적 행동을 대안으로 선택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 이유는 폭력의 과정에서 육체적 능력과 대담성, 공격성을 나타나게 되면 소속 집단에서 주목을 받게 되고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고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18.]. 이와 함께 이혜순[12]의 연구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의 적응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충동성과 부적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13]. 이와 함께 장연

실과 조아미[14]의 연구는 자아존중감이 학교 부적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켰을 때 학교폭력에 대한 성향의 감소를 보고한 연구도 있다[4].

결론적으로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이 형성된 청소년들의 경우 폭력적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청소년들의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은 단순히 청소년들의 심리적 문제로 치부하기 보다는 사회적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부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여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청소년에 의한 학교 폭력 예방에 많은 함의점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 2. 비합리적 신념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신념체계와 주변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비합리적 신념(Irrational beliefs)이 부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비합리적 신념은 합리적 정서 행동치료의 핵심개념이다[25]. 합리적 정서 행동치료는 엘리스(Ellis)라는 학자에 의해서 주장되었다. 그는 정서 장애의 원인은 개인이 경험하는 상황과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상황과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에 의해서 장애와 문제가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하면 사건에 대한 경험은 사건 그 자체의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개인의 신념에 따라서 해석과 평가를 근거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들은 자신이 사고하는 방식에 따라서 같은 사건을 경험해도 정서적 장애가 올 수가 있고 오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28]. 이에 합리적 사고를 하는 개인은 심리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비합리적 사고를 하는 개인은 정서 장애 또는 심리적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25].

이와 같은 비합리적 신념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실과 경험의 불일치이다. 다시 말하면 비합리적 신념은 현실에 대해 논리적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경험의 내용이 달라지고, 둘째 개인의 경험의 내용을 검증할 수 없다. 그리고 현실과 경험이 괴리감

이 있다[16]. 셋째는 비합리적 신념은 논리적이지 않고, 현실과의 괴리감에 의해서 사고의 융통성이 없고 경직되어 있다. 이에 비합리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개인의 신념체계는 고착되어 있어서 변화시키거나 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반응이 매우 강력하며, 부정적인 정서와 행동이 나타나도록 매우 강력한 영향을 준다[17]. 이와 같은 비합리적 신념의 특징을 통해서 비합리적 신념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비합리적 신념은 세상과 자신 그리고 주변 환경과 현실에 대해서 비현실적이고, 과장되고, 융통성이 없는 판단과 사고를 하도록 만드는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체계를 의미한다[18].

따라서 개인의 신념체계로서 비합리적 신념이 내면화 되면 현실을 왜곡하고, 왜곡된 현실은 자신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비합리적 신념은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비현실적으로 판단하고 사고함으로써 자신에 대해 과대평가 하거나 또는 과소평가 하도록 만든다. 이와 같은 평가 결과를 토대로 주변과 상호작용을 하다보면 주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게 되고 이를 통해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된다. 결국 비합리적 신념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을 저해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29].

이와 함께 비합리적 신념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개인의 신념체계이기에 단기간의 교육과 훈련, 상담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에 비합리적 신념이 형성되면 자아존중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조절하거나 예방하는 것도 매우 제한적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비합리적 신념과 자아존중감 사이를 매개하여, 자아존중감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의 영향을 조절할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3. 영성

영성(Spirituality)은 일반적으로 종교적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반 학문 영역에서도 매우 빈번하게 사용

하고 있다[11]. 특별히 영성은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청소년들의 폭력, 비행, 일탈, 신체적 건강, 심리 및 정서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8]. 이와 함께 영성은 청소년의 심리와 정서에 안정을 주어서 다양한 압력 상황에서도 잘 견딜 수 있도록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처럼 영성은 청소년들의 전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로 인해 영성은 다양한 학문적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고,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20].

이와 같은 영성의 정의에 대해 영성과 종교성을 구분하는 정의도 있고, 종교성을 포괄하는 광의적 정의도 있다. 먼저 종교성과 구분하는 영성의 정의는 한 인간이 자신과 주변 사람, 그리고 이 세상을 유지하는 신성한 힘과 맺고 있는 관계로 규정한다[3]. 다음으로 종교성을 포괄하는 영성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영성은 종교적인 것을 넘어선 것으로 인간의 행동을 일으키는 원동력이고, 삶의 중심이 되는 신념이며, 인간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게 하는 힘이며, 인간 자신과 세계, 절대자를 연결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1]. 여러 선행연구들이 영성은 인간의 한 측면이 아닌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연구결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종교성을 포함하는 광의적인 영성의 정의를 수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영성의 긍정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영성 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우울증이 발생할 확률이 낮다[26]. 이와 함께 영성은 청소년의 부적응적 행동 및 반사회적인 행동을 감소시켜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22]. 무엇보다 영성은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주며, 자아개념이 긍정적으로 형성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0]. 이와 함께 영성은 훈련과 교육, 상담을 통해서 향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6]. 이에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과 비합리적 신념을 매개하는 요인으로 영성을 탐색하였다.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영성은 청소년들의 정서와 심리에 매우 높은 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성의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우울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특별히 불우한 환경에

서 성장하여 극도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위험을 경험한 청소년들도 영성 수준이 높은 경우 우울증 수준이 낮은 것과 함께 공격적 행동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영성 수준을 향상 시켰을 때 부적응적 행동이 감소하고 자아존중감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2][23][27]. 이처럼 영성은 청소년의 심리, 정서 영역에 전반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영성을 매개변인으로 선택하여 자아존중감과 비합리적 신념 사이에서 매개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수도권 중학교2개교의 6개반, 고등학교 4개교 12개 반을 대상으로 14세에서 19세 청소년 50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한 결과 응답하여 수집된 419명으로서 평균 연령은 15.8세이다. 성별과 연령의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성별에 따른 연령 분포

비고		나이						전체
		14	15	16	17	18	19	
성별	남자	8	17	24	81	62	13	205
	여자	20	16	24	62	86	6	214
전체		28	33	48	143	148	19	419

#### 2. 연구 도구

##### 1.1 자아존중감 척도

본 연구를 위해 사용한 자아존중감 척도는 진귀연과 최보가[15]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Likert 5점 척도로서 측정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하위요인과 문항 수 및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표 2. 자아존중감 척도

하위영역	문항수	Cronbach's a	.79
총체적 자아존중감	6	.82	
사회적 자아존중감	9	.85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9	.77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8	.85	

##### 1.2 영성 척도

영성 수준 척도는 이은철과 김민정[11]이 개발한 영성 수준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Likert 5점 척도로서 측정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하위요인과 문항 수 및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표 3]와 같다.

표 3. 영성 척도

하위영역	문항수	Cronbach's a	.86
하나님과 관계된 경험을 함	5	.90	
바르게 사는 것	5	.79	
영성의 영향	3	.84	
전통적 신앙심	5	.91	
종교 활동	3	.79	
초월적 힘 경험	5	.88	

##### 1.3 비합리적 신념 척도

본 연구를 위해 사용한 비합리적 신념 척도는 신현균[8]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Likert 5점 척도로서 측정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하위요인과 문항 수 및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표 4]와 같다.

표 4. 비합리적 신념 척도

하위영역	문항수	Cronbach's a	.83
과다한 자기 기대 신념	18	.83	
이분법적 신념	12	.86	
결정론적 신념	12	.70	
과잉 염려 및 회피 신념	12	.79	
과잉 의존 신념	6	.85	

####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연구 문제의 검증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비합리적 신념이 영성을 경유하여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

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평가를 할 때  $\chi^2$  검증과 적합도지수를 이용한다. 그러나  $\chi^2$  검증의 가정은 영가설이 “모형은 변인 사이의 관계를 완벽하게 설명한다.”로서 검증 자격이 너무 엄격하여,  $\chi^2$  검증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제한이 많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적합도 지수들이 개발되었다. 이 가운데 모형검증을 위해 일반적으로 절대적합도 지수인 GFI(Goodness of Fit Index)와 상대적합도 지수인 NFI(Normed Fit Index)를 통해 모형 적합도를 검증한다. 이와 함께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검증할 수 있는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지수를 사용한다. 모형 적합성의 기준은 GFI와 NFI는 0.9이상이어야 하며, RMSEA는 0.065보다 작아야 한다[1]. 이에 본 연구는 모형 검증을 위해, GFI, NFI, RMSEA 지수를 사용하여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최초 연구 모형 검증결과

본 연구는 비합리적 신념이 영성을 매개하여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최초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 모형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그에 앞서 각 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이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고, 각 변인 간의 상관이 .80이 넘지 않으므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후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최초연구 모형은  $\chi^2=282.657$ ,  $df=85$ ,  $p<.000$ 이며,  $GFI=.964$ ,  $NFI=.950$ , 그리고  $RMSEA=.072$ 로 나타났다. 모형 적합도에서 GFI, NFI는 모두 .900 이상이 나타나야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RMSEA는 .065 정도 수준이 나타나야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최초 연구 모형[그림 1]은 GFI, NFI는 모두 .900 이상이 나타났지만, RMSEA 값이 .072로 .065보다 높게 나타나 최초 모형은 모형 적합도가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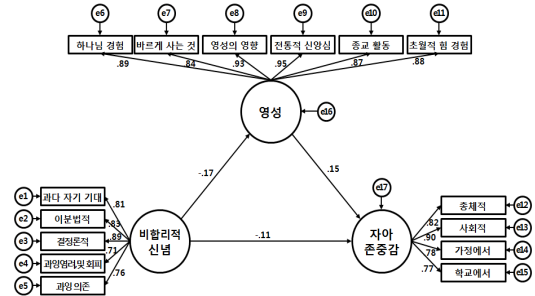


그림 1. 최초 연구 모형

표 5. 최초 연구 모형 모형적합지수

모형적합도	$\chi^2$	GFI	NFI	RMSEA
지수	282.657	.964	.950	.072

이에 모형 수정 지수를 검토한 결과 비합리적 신념의 하위 요인인 결정론적 신념과 과잉염려 및 회피 간의 상관을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영성의 전통적 신앙심과 종교 활동 간의 상관을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영성의 하나님 경험 요인과 초월적 힘 경험 요인 간의 상관을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수정 지수를 토대로 모형을 1차 수정하였다.

##### 2. 1차 수정 연구 모형 검증결과

모형수정 지수를 참고하여 1차 수정한 연구 모형의 모형적합도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차 수정모형의 모형적합도는  $\chi^2=222.527$ ,  $df=83$ ,  $p<.000$ ,  $GFI=.975$ ,  $NFI=.961$  그리고  $RMSEA=.061$ 로 나타났다. 모형 적합도에서 GFI, NFI는 모두 .900 이상이 나타나야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RMSEA는 .065 정도 수준이 나타나야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의 1차 수정모형[그림 2]은 GFI, NFI는 값이 모두 .900이상으로 나타났고, RMSEA 값이 .061로 .065보다 낮게 나타나 1차 수정 모형은 모형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이에 1차 수정 모형을 통해서 다음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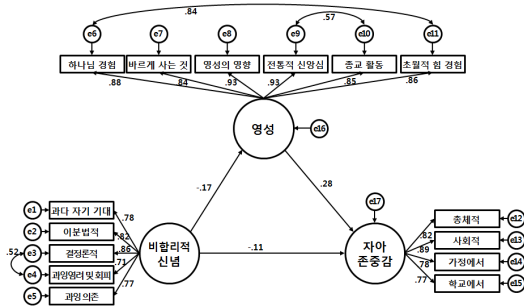


그림 2. 1차 수정 연구 모형

표 6. 1차 수정 연구 모형 모형적합지수

모형적합도	$\chi^2$	GFI	NFI	RMSEA
지수	222.527	.975	.961	.061

1차 수정 모형이 적합하므로 연구 모형을 통해 추정된 경로계수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합리적 신념은 영성에 .17 수준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에는 .11 수준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성은 자아존중감에 .28 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이는 비합리적 신념이 영성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고, 영성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되었기에 비합리적 신념이 영성을 경로하여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7. 1차 수정 연구 모형 모형의 모수 추정치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비합리적 신념 → 영성	-.16	-.17	.09	3.265***
비합리적 신념 → 자아존중감	-.09	-.11	.02	2.396**
영성 → 자아존중감	.26	.28	.06	4.845***

\*\*\* p<0.001, \*\* p<0.01, \* p<0.05

모형 적합성과 경로계수를 검토한 결과 매개효과를 전제할 수 있기에 주요 변인들의 직, 간접 효과 및 총 효과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합리적 신념이 영성에 미치는 총 효과는 .16 수준이며, 직접 효과는 .16 수준이다. 다음으로 비합리적 신념이 자아존중감에 대한 총 효과는 .32 수준이며, 직접 효과는 .02

수준이고 간접효과는 .30 수준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아존중감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의 영향을 영성이 매개하는 것을 증명한다[표 8].

표 8. 주요 변인들의 직·간접 및 총 효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비합리적 신념	영성	.17	.00	.17
	자아존중감	.11	.25	.36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과 비합리적 신념의 관계에서 영성이 매개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그 결과 영성이 자아존중감과 비합리적 신념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비합리적 신념이 자아존중감에 대한 직접 효과가 .02로 나타난 반면, 영성을 경로로 하여 나타나는 간접 효과는 .30으로 직접 효과보다 간접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난다. 이는 자아존중감과 비합리적 신념의 관계에서 영성이 부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간접 효과가 크다는 것은 영성을 경로로 할 때 자아존중감에 대한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비합리적 신념이 영성과 자아존중감에 부적인 영향을 주고, 영성은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는 자아존중감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의 부정적인 영향을 영성이 매개하였을 때 부정적인 영향의 수준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만약에 영성이 매개하지 않고 비합리적 신념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줄 경우 부정적인 영향으로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영성이 매개하였을 경우 영성의 수준에 의해 비합리적 신념의 부정적인 영향이 조절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영성이 청소년의 심리적 영역과 신념체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23][27].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함의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비합리적 신념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서 영성이 매개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긍정적이고 건강한 자아존중감 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영성을 통해 마련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것이다. 선행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영성은 교육과 훈련,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향상 가능한 유동적 요인이다. 그러나 비합리적 신념은 개인의 신념 체계로서 조절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소년의 긍정적이고 건강한 자아존중감 형성을 위해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청소년 영성을 향상시킨다면 비합리적 신념체계를 가지고 있던 청소년들도 영성의 영향으로 긍정적이고 건강한 자아존중감을 형성할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 폭력 예방 및 수준을 줄이기 위한 교육 방안을 도출한 것이다. 그 동안 학교 현장에서 학교 폭력 수준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영성 훈련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회복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청소년의 영성 수준 향상을 위한 훈련과 교육이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수준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이는 학교 폭력 예방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안한 것이기에 본 연구의 함의점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제한점은 표본의 수집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이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전국단위 학생들을 표집해서 추가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영성 수준 향상 프로그램에 대한 구성 내용, 교수-학습 방법등을 제안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향후 연구를 통해서 영성 수준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연구를 제안하는 것으로 본 연구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1] 김계수, *AMOS 18.0 구조방정식모형분석*, 서울: 한나라이카데미, 2011.

[2] 김광수, “청소년의 분노수준, 분노대처방식과 학교생활적응,” *교육심리연구*, 제17권, 제3호, pp.393-410, 2003.

[3] 김종성, 안상섭, 한성열, “영성의 긍정적 기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15권, 제1호, pp.207-226, 2009.

[4] 나현숙, 김미옥, 천성문, “배려증진 프로그램이 학교폭력 가해아동의 자아존중감, 공격성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제30권, 제4호, pp.291-315, 2014.

[5] 남윤자, *청소년을 위한 기독교적 용서 프로그램이 용서정도, 분노감 및 영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침례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6] 박효정, 이희현, 최보라, 유형근, 최지영, *학교폭력 예방문화 정착방안 연구(1): 학교폭력예방문화 지표 개발 및 타당화*, 한국교육개발원, 2014.

[7] 배은주, *기독교 신앙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성결대학교 목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8] 신현균, *비합리적 사고와 귀인양식에 있어서 우울 집단과 불안집단 비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9] 오종은, 이재연, “일반청소년과 학교폭력 가해청소년의 불안이 폭력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노표현양식의 매개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32권, 제5호, pp.163-178, 2014.

[10] 이병환, 강대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부적응 행동 요인 분석,” *교육문화연구*, 제20권, 제3호, pp.125-148, 2014.

[11] 이은철, 김민정, “청소년을 위한 영성 척도 개발,” *열린교육연구*, 제18권, 제3호, pp.243-263, 2010.

[12] 이혜순, “청소년의 자아분화 수준 및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호, pp.333-341, 2013.

[13] 이혜순, 옥지원, “청소년의 충동성, 자아존중감, 우울수준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호, pp.438-446,



- 2012.
- [14] 장연심, 조아미,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미래청소년학회지*, 제4권, 제1호, pp.123-136, 2007.
- [15] 전귀연, 최보가,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및 가족체계 유형이 부모-청소년기 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31권 제3호, pp.157-173, 1993.
- [16] 홍경자, 채유경, 이명자, “청소년의 비합리적 신념과 자아존중감, 지각된 부모양육 태도가 그들의 분노 표현방식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제1권, 제1호, pp.161-181, 2000.
- [17] B. B. Asgeirsdottir, G. H. Gudjonsson, J. F. Sigurdsson, and I. D. Sigfusdottir, “Protective processes for depressed mood and anger among sexually abused adolescents: The importance of self-estee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49, No.5, pp.402-407, 2010.
- [18] M. T. Britto, B. K. Klostermann, A. E. Bonny, S. A. Altum, and R. W. Hornung, “Impact of a school-based intervention on access to healthcare for underserved youth,”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Vol.29, No.2, pp.116-124, 2001.
- [19] T. Cromley, S. Knatz, R. Rockwell, D. Neumark-Sztainer, M. Story, and K. Boutelle, “Relationships Between Body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and Weight-Related Cognitions and Behaviors in Overweight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Vol.50, No.6, pp.651-653, 2012.
- [20] T. L. Davis, B. A. Kerr, and S. E. R. Kurpius, “Meaning, purpose, and religiosity in at-risk youth: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ety and spirituality,”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Vol.31, No.4, pp.356-365, 2003.
- [21] E. Franck and R. De Raedt, “Self-esteem reconsidered: Unstable self-esteem outperforms level of self-esteem as vulnerability marker for depressio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Vol.45, No.7, pp.1531-1541, 2007.
- [22] M. Good and T. Willoughby, “The role of spirituality versus religiosity in adolescent psychosocial adjust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35, No.1, pp.41-55, 2006.
- [23] D. R. Hodge and R. D. Derezotes, “Postmodernism and spirituality: Some pedagogical implications for teaching content on spirituality”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Vol.44, No.3, pp.103-123, 2008.
- [24] H. M. Laithwaite, A. Gumley, A. Benn, and E. Scott, “Self-Esteem and Psychosis: A Pilot Study Investigating the Effectiveness of a Self-Esteem Programme on the Self-Esteem and Positive Symptomatology of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Behavioural and Cognitive Psychotherapy*, Vol.35, No.5, pp.569-578, 2007.
- [25] N. Ozabac'y, “Cognitive behavioural therapy for violent behaviour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meta-analysi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Vol.33, No.10, pp.1989-1993, 2011.
- [26] M. J. Pearce, T. D. Little, and J. E. Perez, “Religiousnes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Vol.32, No.2, pp.267-276, 2003.
- [27] J. E. Perez, T. D. Little, and C. C. Henrich, “Spirituality and Depressive symptoms in a school-based sample of adolescents: A longitudinal examination of mediated and moderated effec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Vol.44, pp.380-386, 2009.
- [28] D. G. Sukhodolsky, H. Kassino, and B. S. Gorman, “Cognitive-behavioral therapy for

anger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meta-analysi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Vol.9, No.3, pp.247-269, 2004.

[29] T. G. Van Manen, and P. M. Emmelkamp, “Reducing aggressive behavior in boys with a social cognitive group,”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Vol.9, pp.247-269, 2004.

[30] A. Wigfield and S. Tonks, “adolescents’ expectancies for success and achievement,” In F. Pajares & T. Urdan (Eds.), *Academic Motivation of Adolescent*, Conn: Information age publishing, pp.53-82, 2002.

[31] G. S. Wilson, M. E. Pritchard, and B. Revaloe, “Individual differences in adolescent health symptoms: the effects of gender and coping,” *Journal of Adolescence*, Vol.28, No.3, pp.369-379, 2005.

저 자 소 개

이 은 철(Eun-Chul Lee)

정회원



- 2008년 8월 : 중앙대학교 교육학  
과(교육석사)
- 2012년 8월 : 단국대학교 교육학  
과(교육박사)
- 2013년 10월 ~ 현재 : 한국교육  
개발원 부연구위원

<관심분야> : 이러닝, 이러닝교수 설계, 온라인 협력 학습환경에서 상호작용

부록. 측정 변인의 상관계수

하위 요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자아존중감	총체적 (1)	1													
	사회적 (2)	.738***	1												
	가정에서 (3)	.636***	.702***	1											
	학교에서 (4)	.244***	.317***	.290***	1										
비합리적 신념	과다 자기기대 (5)	-.244***	-.271***	-.283***	-.446***	1									
	이분법적 (6)	-.248***	-.280***	-.270***	-.395***	.824***	1								
	결정론적 (7)	-.022*	-.047*	-.062*	-.430***	.650***	.628***	1							
	과잉염려 및 회피 (8)	-.052*	-.052*	-.079*	-.340***	.625***	.590***	.751***	1						
	과잉의존 (9)	-.058*	-.153***	-.227***	-.391***	.637***	.570***	.716***	.655***	1					
영성	하나님 경험 (10)	.124***	.104**	.114**	.074*	-.086*	-.043*	-.134***	-.083*	-.152***	1				
	바르게 사는 것 (11)	.230***	.207***	.206***	.110**	-.135***	-.092*	-.094**	-.097**	-.130***	.751***	1			
	영성의 영향 (12)	.162***	.117**	.115**	.098**	-.125***	-.088*	-.152***	-.108**	-.180***	.825***	.810***	1		
	전통적 신앙심 (13)	.151***	.120**	.116**	.069*	-.132***	-.080*	-.135***	-.097**	-.165***	.858***	.772***	.885***	1	
	종교 활동 (14)	.128***	.156***	.124***	.100**	-.112**	-.121**	-.188***	-.118**	-.193***	.761***	.743***	.782***	.820***	1
	초월적 힘 경험 (15)	.132***	.113**	.102**	.039*	-.043*	-.017*	-.136***	-.079*	-.120**	.791***	.731***	.809***	.828***	.798***